



인쇄산업 발전전략 워크숍 및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 “인쇄는 고급 콘텐츠 서비스업”



서울인쇄센터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중구 쌍림동에 위치한 센터 7층 강당에서 ‘인쇄산업 발전전략 워크숍 및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쇄업체 대표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이 행사는 인쇄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 양갑수 부장이 ‘공공구매지원제도 활용’ 과 ‘중소기업신규등록 요령’에 대해, 피알아트(주)

이근순 대표이사가 ‘인쇄산업의 변화 및 발전방향’에 대해, 한국기업데이터 문일구 차장이 ‘기업신용평가 안내’에 대해,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권혁인 교수가 ‘서울시인쇄문화산업 기반조성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인쇄센터측은 “인쇄산업 시스템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디지털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이 인쇄산업과 결부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혁인 교수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전문가 중심의 노동집약 산업화 추세

최근 인쇄·출판업계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한가지 뚜렷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모든 공정에 있어서 급속한 토털 솔루션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획-디자인-프리프레스-프레스-포스트프레스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각 공정마다 작업자의 세세한 손길이 요구됐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장비의 급속한 발달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노동력이 요구됐던 인쇄(Press) 부문은 초정밀 컴퓨터 기술과의 결합으로 '3D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첨단 정보산업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서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의 인쇄기계는 가히 '인쇄라는 특수목적의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인쇄산업 자체도 보다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 중심의 노동집약 산업화'가 바로 그것이다.

## 고부가가치 창출 위해 서비스 관점의 접근 필요

이러한 인쇄·출판 산업을 대표적인 첨단정보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인쇄업을 제조와 지식산업을 아우르는 서비스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비스 산업이 국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인구 상위 10개 국가별 산업별 노동인력 비율을 보더라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서비스 산업의 비율이 60~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도 도시화 사회 기반 시설 및 비즈니스의 발달로 인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의 서비스 산업은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그 영역은 지식 기반, 문화관광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지식산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도 인쇄·출판을 도심지역 산업으로 활성화 시키는 한편, 금융, IT, 섬유, 패션 등을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함께 키워나간다면 산업 경쟁력 확대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은 물론 엄청난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쇄관련 창의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방식을 통한 인쇄품질의 향상과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한 재고관리 시스템의 과학화와 같은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인쇄·출판업은 대표적 도심형 산업

그렇다면 오늘날 인쇄·출판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떠한가.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인쇄업을 유망직종으로 분류,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4월 서울시는 인쇄업을 특화산업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2002년 (재)서울인쇄센터를 설립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산업 분포 측면에서 볼 때 인쇄·출판산업은 한마디로 명실상부한 '도심형 산업'이다. 서울에 있는 전체 업체의 65%, 종사자의 60%, 매출액의 70%를 인쇄·출판업이 차지할 정도로 문화 수도인 서울의 핵심사업으로서의 위치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쇄·출판업은 점차 '고급 콘텐츠 서비스' 산업으로 재정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인쇄·출판을 도심지역 산업으로 활성화시키는 한편, 금융, IT, 섬유, 패션 등을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함께 키워나간다면 산업 경쟁력 확대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은 물론 엄청난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쇄관련 창의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방식을 통한 인쇄품질의 향상과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한 재고관리 시스템의 과학화와 같은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